

광주 지방의원 ‘딥페이크’ 협박 피해 잇따라

‘누리집’ 게시 사진 악용 ‘의정 활동용’ 메일로 발신 수사 의뢰 이어져...공개범위 제한 필요 등 의견도

딥페이크 허위 음란물을 당사자에게 보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범죄에 광주지역 의원 다수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광주 한 기초의회 소속

A 의원으로부터 ‘딥페이크 허위 음란물’이 첨부된 협박성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협박성 메일이 A 의원의 소속 의회 누리집에 공개된 ‘의정 활동용’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음란물 제작에 쓰인 사진 역

시 이곳에서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체불명의 발신인은 음란물과 함께 ‘당신의 범죄 증거(범죄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당장 연락하라’는 취지의 협박성 문구를 보냈다. 경찰은 A 의원에게 메일을 보낸 이를 추적 중이다. A 의원 외에도 최근 들어 광주 기초의회 의원 다수가 유사한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봤다고 밝힌 이들만 10명에 달하는데, 메일함을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

는 의원들도 있어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각의 딥페이크 허위 음란물은 피해자 사진만 다르고 기본 배경 등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동일 범 소행이라는 데 실려, 한 기초의회는 공동 수사 의뢰 등을 준비하고 있다. 나머지 피해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고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악성 민원’ 등의 괴롭힘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

기관 누리집에서 공무원의 이름을 검색되지 않게 한 것처럼 의원들 역시 일정 정보 공개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들의 정보를 제한하는 건 이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에 큰 벽을 세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한 기초의회 관계자는 “피해를 겪은 의원들의 대응은 제각각이나, ‘이대로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형

성됐다”며 “정보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초 기초 딥페이크 범죄 피해 신고 4건에 대해 수사 중이던 광주경찰청에는 추가 피해 신고가 잇따라 경찰은 제작자 파악 등에 주력하고 있다. 전남경찰청도 최근 나주에서 추가 피해 신고를 접수해 총 5건의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중 2건은 마무리 단계다. /안재영 기자

20년 함께 산 배우자 살해 80대 가중처벌

1심은 치매 등 고려 징역 10년 선고...항소심 법원은 ‘징역 15년’

20년을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치매 노인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 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A(8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광주 남구 방림동 자택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고령인 점,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

에 따른 권고형(징역 10-16년) 중 최저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양형 사유 전반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가벼웠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이의 손에 살해됐으나 A씨는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의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안재영 기자



‘놀이는 나의 권리입니다’ 이동 친화 거리 조성을 위한 ‘이미키즈 팝업놀이터’ 행사가 12일 오후 광주 서구 유덕동 이미마을 유덕어린이공원에서 10여개 관련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놀이는 나의 권리입니다’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애리 기자

‘무기징역’ 가스라이팅 살인 30대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 첫 재판서...내달 3일 재개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일명 ‘가스라이팅 살해’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 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A(31)씨와 B(30)씨를 차량에 한 달가량 가둔 뒤 서로를 폭행하게 해 A씨가 숨지고 B씨가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변호사 사무장 행세를 한 이씨는 민사사건 처리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뒤 이들에게 돈을 갚으라며 심리적으로 지

배(가스라이팅)해 차량에 가두고 서로 폭행을 가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실체 없는 분쟁과 비용 부담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착취하고 노예처럼 부려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했다”며 강도살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했다. 피고인과 검찰의 쌍방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이씨는 “피해자 중 1명에 대해 가스라이팅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의 법률 비용을 두고 다투어 있었다는 공소사실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도 유죄이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도 다시 판단을 구한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씨 변호인이 요청한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따져본 후 다음 달 3일 재판을 재개할 방침이다. /안재영 기자

‘889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일망타진

작년 8월~올해 5월 9곳 개설...광주경찰, 18명 구속 등 97명 송치

점조직 형태로 총 9곳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여원을 굴린 조직이 일망타진됐다. 12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관 등의 주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수시로 사무실을 옮겨다녔다. 조직폭력배까지 함께한 이들의 범행은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약 8개월 동안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막을 내렸다. 폐쇄되기 전 A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 9곳에서 오간 돈은 총 889억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통상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이 거점을 해외에 두는 것

과 달리 제주도에서 활동했다. 중간 관리자, 사이트 개발자, 대포통장 유통 등의 역할을 맡은 각 조직원들은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며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수시로 사무실을 옮겨다녔다. 조직폭력배까지 함께한 이들의 범행은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약 8개월 동안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막을 내렸다. 폐쇄되기 전 A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 9곳에서 오간 돈은 총 889억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본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강

제수사에 나섰다 당시 현금 1억2천만 원을 압수했고, 범행이용계좌 26개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 조치하며 범죄 수익금 4억 원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또 A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즐긴 140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했다. 도박 행위자 중 6명은 치료와 재발을 받도록 전문기관에 인계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강력한 단속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며 “도박에서 혼자 벗어나기란 어려운 만큼 주변에서 목격했다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안재영 기자

불법체류자 납치 감금 강도

‘경찰관 형제 2인조’ 징역형

경찰을 사칭하며 불법체류자를 납치, 감금해 강도 행각을 벌인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 판사)는 12일 인질강도, 공무원자격을 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와 B(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영광군에서 경찰인 척 하며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를 붙잡아 모조 수갑을 채우고, 피해자의 가족에게서 한화 약 149만원(3만9천บาท)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고,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안재영 기자

도박판 선고...잡고 보니 불법체류자

나주시 한 농촌 주택에서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12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1분께 농촌 주택에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휴일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나주경찰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급습했으나 도박과 관련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현장에 있던 15명이 모두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이들의 신병을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나주경찰서는 그동안 불법체류자 검거 및 도주사과 예방을 위해 다양한 가상 상황을 설정하고 반복 훈련을 실시해 왔다. /나주=정종환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